

지니 조리 시그니처 와인 글라스 컬렉션 국내 첫 선



지니 조리 제공

와인 전문가의 오랜 경험으로 완성된
‘지니 조리 시그니처 와인 글라스 컬렉션’

와인전문가 지니 조리는 영국 마스터 오브 와인 협회가 인증하는 ‘마스터 오브 와인’을 취득한 첫번째 아시아인이다. 지니 조리가 20년 넘는 와인 경험을 바탕으로 3년에 걸쳐 직접 개발한 ‘지니 조리 시그니처 와인 글라스 컬렉션(이하 지니 조리 글라스)’이 국내에 첫 선을 보인다. 지니 조리 글라스는 와인을 즐기기 적합한 온도에 따라 분류한 C 시리즈 3종, 다양한 상황에서 두루 사용할 수 있는 U 시리즈 2종으로 구성된다. 이탈리아 베네치아 전통 유리 세공 기술을 적용해 최상급 글라스를 제작하는 브랜드 ‘자페라노’에서 생산되며, 와인 잔에 동서양의 조화를 의미하는 태극 문양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이영미 Home&Living 기자

(4.5*23.6)cm